

# ‘김연경 복귀’ 흥국생명, 현대건설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김연경, 7득점 활약...스코어 3-0 완파

‘배구여제’ 김연경이 합류한 흥국생명이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첫 경기부터 ‘최강’의 면모를 드러냈다.

흥국생명은 30일 충북 제천시 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A조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세트 스코어 3-0(25-15 25-13 25-22)으로 완파했다.

김연경의 국내 복귀전으로 더 뜨거워 경기였다. 터키와 일본, 중국 등 해외 무대에서 뛰었던 김연경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으로 돌아왔다.

11년 만에 국내 코트에 선 김연경은 블로킹과 서브 에이스를 각각 1개씩 기록하며 7득점을 올렸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해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러냈다.

흥국생명 이재영은 19점으로 양 팀 선수 중 가장 많은 점수를 수확했다. 루시아(9점), 김세영(7점), 이주아(7점) 등이 승리에 힘을 보탰다.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정지윤, 고예림이 각각 8점씩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흥국생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흥국생명은 1세트에서 기선제압을 했다.

8-8에서 루시아의 후위공격을 시작으로 이다영의 서브, 김세영의 블로킹으로 차이를 벌려나갔다. 15-13으로 쫓기기도 했지만 이다영의 오픈 공격과 김연경의 블로킹에 이어 상대 범실까지 연거푸 나오며 21-13으로 달아났다. 23-15에서는 김연경의 킥오

핀과 김세영의 블로킹으로 세트를 정리했다.

2세트도 흥국생명의 차지였다. 초반 6-10으로 끌려가던 흥국생명은 이재영의 후위 공격과 김연경의 서브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끈끈한 수비에 공격까지 힘을 받은 흥국생명은 12-12에서 이재영의 연속 4득점을 시작으로 23-12까지 달아났다. 이재영은 세트 포인트에서 시간차 공격까지 성공, 2세트를 마무리했다.

흥국생명은 3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16-10으로 앞서가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빼고 이한비를 투입했다. 김연경이 빠진 사이, 흥국생명은 양효진의 블로킹에 당하며 16-15까지 추격을 당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재영의 킥 오픈과 박현주의 서브 득점으로 18-15로 다시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굳혔다.



## 이대호, KBO 7번째 12년 연속 100안타...6번째 1200타점

시즌 100호 안타도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타자 이대호(38)가 KBO리그 역대 7번째로 12년 연속 100안타를 날렸다.

롯데는 2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솔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1회말 시

즌 100호 안타를 친 후 4회 시즌 14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KBO 역사상 7번째로 12년 연속 100안타를 기록했다.

또한 홈런으로 타점을 올려 사상 6번째 1200타점을 돌파했다. 시즌 68타점째.

이대호는 1회말 2사 1루에서 한화 선발 김이환을 상대로 안타

를 만들어냈다.

이대호는 6-0으로 앞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한화 두 번째 투수 안영명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23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2홈런을 친 뒤 5경기 만에 짜릿한 손맛을 봤다.

뉴시스

## 김한별, 연장전서 이재경 누르고 코리안투어 첫 우승

헤지스골프 KPGA 초대 챔피언 등극



김한별(24)이 이재경(21)을 연장전에서 꺾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첫 우승에 성공했다.

김한별은 30일 경기도 포천의 일동레이크 골프클럽(파 72)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헤지스골프 KPGA 오픈(총상금 5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치며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친 김한별은 이재경과 동률을 이루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연장 1차전에서 김한별은 버디에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한별은 헤지스골프 KPGA

오픈 초대 챔피언에 오르며 우승 상금 1억원을 쟁겼다.

데뷔 2년 차인 김한별은 지난 7월 KPGA 오픈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데뷔 동기 이재경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김한별은 연장 승부 끝에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김한별은 "첫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이뤄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승 후 눈물을 쏟아낸 김한별은 "우승하게 된다면 싱글벙글 웃을 줄만 알았다. 그런데 막상 하나까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주변에서 재능만 믿고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 김광현, 9월2일 신시내티전 그레이와 선발 맞대결 전망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32)이 신시내티 레드 에이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9월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신시내티전의 선발 투수로 김광현-소니 그레이를 예고했다.

인상적인 8월을 보낸 김광현의 9월 첫 등판이다.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출발했던 김광현은 선발로 보직 이동하면서

뛰어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경기에서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 비자책을 기록하는 등 8월 한 달간 3경기에서 15%이닝을 던지며 1승무패 평균자책점 0.57로 맹활약했다.

## 류현진, BAL전 기록 1자책점으로 수정...ERA 2.92 ↓

8월 ERA 1.29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자책점 기록이 정정됐다. 아쉬운 수비 속에서 기록됐던 2자책점이 1자책점으로 조정됐다.

류현진은 지난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살렌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 선발 등판, 6이닝 8피안타 7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실점은 2-0으로 앞선 6회초 수비가 흔들리면서 나왔다.

류현진은 6회 2사 만루 위기에 서 볼티모어 라이언 마운트캐슬

에게 3루수 땅볼을 유도했다.

하지만 3루수 트레비스 쇼의 1루 송구가 빗나갔다. 원 바운드 송구를 1루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도 포구하지 못하면서 주자 2명이 홈을 밟았다.

MLB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최초 이 장면을 3루수 실책으로 기록했다. 이 경우 류현진의 자책점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MLB닷컴은 쇼의 실책이 아닌 마운트캐슬의 안타로 수정했다. 류현진이 안타를 맞고 2점을 준 것으로 바뀌면서 류현진의 자책점도 0에서 2로 올랐다.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베테랑 기자인 버팔로 뉴스의 마이크 해링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어쩌면 수년 간 본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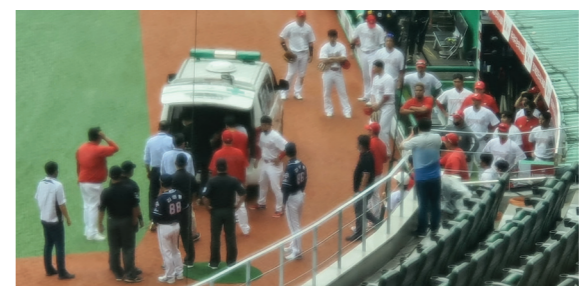
결국 류현진의 자책점은 '1'로 정정됐다. 마운트캐슬의 내야안타는 그대로 인정, 3루 주자의 득점은 류현진의 자책점으로 남았다. 대신 2루 주자의 득점은 3루수 송구 실책에 의한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16에서 2.92로 낮아졌다.

8월 한 달간 평균자책점은 1.61에서 1.29로 내려갔다.

## 경기중 쓰러진 염경엽 감독, 내일 홈경기서 복귀

지난 6월2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도중 염경엽 SK 감독이 쓰러졌다. 2개월 간의 안정을 취하고 오는 9월 1일 복귀한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염경엽 감독이 오는 9월1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복귀한다. 염 감독은 지난 6월25일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양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는 모두 깜짝 놀라 염 감독의 건강에 대해 걱정했다.

염 감독은 두 곳의 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2개월의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SK는 "지난 28일 나온 염경엽 감독의 건강 검진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염 감독과 면담 후 구단 내부 회의를 통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